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계 열	인문계열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 명	

※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지급된 흑색 볼펜으로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인적사항 및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2023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가) 제가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 런던에 있는 국제 사면 위원회 본부의 연구 부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점심시간을 쪼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딱지만 한 제 사무실에서 독재 정권하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이 서슬이 시퍼런 권력의 눈을 피해 몰래 반출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들은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증언도 읽었고, 고문으로 인한 상처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인간의 선한 면에 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들 자신은 신념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된 경험이 없는데도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힘은 단체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생명을 구하며 감금된 자들을 해방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보통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어떤 이는 이러한 능력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데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데 쓸지도 모릅니다. ……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언권이 없는 이웃을 대신해서 주장을 펼친다면, 만약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려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누린 것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욱 나은 삶을 살게 된 수천수만의 사람이 여러분의 존재를 기릴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도덕적 행위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신문 기사에 오르내린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 담당자 엄청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던데, 어떻게 회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대?”라며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개인으로서의 ‘나’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소속된 나’는 다른 것일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 시험이 끝나고 친한 친구들끼리 밥값 내기 축구 시합을 했다. 경기가 과열되자, 각 팀의 선수들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 팀에게 교묘한 반칙과 격한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합은 감정싸움으로 변했다.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도덕적인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까? 우리는 간혹 집단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폭력이라든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간의 갈등을 접하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떼어 놓고 보면 모두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사회 집단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 내의 윤리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양심 및 도덕성의 결핍에서 찾으며, 바른 도덕성을 길러주고 품성을 도야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개인 윤리는 한계에 부딪혔다.

(다) “어제 쫓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쫓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

“……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패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히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켜.”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

황만근은 ……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툇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동네 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 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내 이러키까지 말을 해도 소양(‘소용’의 방언)이 없어. 보나 마나 내일, 용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거이 겘농사 짓는 놈들이나 밋 올까. 만그이 자네겘이 톱 부러지기 농사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 끼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겘은 현 김운기에다 농사짓는 놈 다 직 이라고 씨 불이 달고 가야 되께 ……….”

민 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 내가 왜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1. 제시문(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문(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다)의 황만근, 민 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제시문(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Tel 02-3408-3114 www.sejong.ac.kr

입학안내 Tel 02-3408-3456, 4455 Fax 02-3408-3556 ipsi.sejong.ac.kr